

다니엘서 - 번호 백칠십일

지정학의 체스 게임: 바티칸, 공산주의, 그리고 세계 지배의 추구

Jeff Pippenger

2024-04-01

«The Keys of This Blood: The Struggle for World Dominion Between Pope John Paul II, Mikhail Gorbachev, and the Capitalist West»는 말라키 마틴이 저술한 책으로, 1990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마틴은 20세기 후반 세계 정치와 외교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변혁적 인물로 수행한 역할을 고찰한다. 그는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데 있어서 교황의 역할을 논한다. 이 책은 1989년 끝의 때에 다니엘 11장 40절이 성취되도록 이끈 역학에 대한 가톨릭적 관점을 제시한다.

마틴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지도 아래 있던 소련의 내부 역학을 분석하며, 특히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재구조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소련이 직면한 도전과 공산주의 체제를 개혁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시도를 다룬다. 그는 소련(남쪽의 왕-용), 가톨릭 교회(북쪽의 왕-짐승), 그리고 그가 "자본주의 서방"이라고 부르는 세력(북쪽의 왕의 대리 군대-거짓 선지자)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과 권력 투쟁을 탐구한다. 그는 냉전 시대를 특징지은 이념적 갈등, 첩보 활동, 비밀 공작을 논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살펴본다.

마틴은 가톨릭이 세계 정치와 외교에서 작동하는 세력으로서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지도 아래 가톨릭교회가 이 시기의 역사 전개를 형성하고 냉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포르투갈 파티마의 성모 발현이라는 맥락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파티마가 세계적 사건들에 미친 영향과 역사 전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지적한다. 마틴은 파티마에서의 사건들이 특히 냉전 시대의 맥락에서 중요한 예언적이고 지정학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시사한다.

마틴은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가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계시했다고 전해지는 '파티마의 세 비밀'을 탐구한다. 그는 세 번째 비밀이 처음에는 바티칸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가 2000년에야 공개되었으며, 가톨릭 교회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경고를 담고 있었다고 시사한다. 마틴은 성모 마리아의 발현과 그녀가 전한 메시지를 포함한 파티마의 사건들이 냉전 시대 세계 정치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투쟁에 중대한 함의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마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파티마의 예언 성취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요한 바오로 2세가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언급된 "하얀 옷을 입은 주교"를 자신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교황직을 악의 세력에 맞서고 가톨릭 교회와 더 넓은 사회 전반에서 영적 쇄신을 촉진하는 사명으로 여겼다고 시사한다.

마틴은 파티마의 메시지가 영적 전쟁의 중요성과 가톨릭 교회가 교회 안팎의 악의 세력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시사한다. 그는 파티마에서의 사건들이 현대 세계에서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영적·도덕적 틀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시기에 사탄이 그리스도를 '사칭'할 때 가톨릭이 사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조건화하는 사탄적 메시지를 대표한다.

사탄은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강신술은 죽은 자들을 사칭하게 함으로써 자기 일을 수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부하는 종교 단체들은 강한 기만 아래 있게 되며,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세속 권세와 연합할 것이다.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교황권과 연합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하는 영적 폭정을 행사하게 될 거대한 박해 체제를 이루는 바로 그 권세이다.

'그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면서도, 사람들은 용의 영에 물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장하지만, 사탄의 영으로 말하고 입법하며, 그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임을 드러낸다. 이 어린 양 같은 권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 용과 연합한다. 그리고 사탄은 개신교도들과 교황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이 세상의 신인 양 그들과 보조를 맞추며, 마치 사람들이 그의 왕국의 신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자기 뜻대로 다루고 통치하고 통제한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용의 영이 드러난다. 그들은 투옥되고, 재판정에 회부되며, 벌금을 물게 된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6].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형상이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15절]. 이처럼 사탄은 여호와의 고유 권한을 찬탈한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행동한다. Manuscript Releases, 14권, 162쪽.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교황과 사탄, 두 존재 모두를 상징한다. 로마의 교황은 사탄의 지상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탄은 여호와의 특권을 찬탈한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탄은 권세를 잡게 되면 세상을 그렇게 장악하여 사람들에게 "그의 왕국의 신민인 것처럼, 그의 뜻대로 다루어지고, 통치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려 한다. 그가 그 위에서 다스릴 종교적 왕좌를 갖기 위해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고, 그가 그 위에서 다스릴 정치적 왕좌를 갖기 위해 유엔을 만들었다.

이교와 기독교 사이의 이 타협은 예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로 예고된 '죄의 사람'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 거대한 거짓 종교 체계는 사탄의 권세가 빚어낸 걸작—그가 자기 뜻대로 땅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보좌에 앉으려 한 노력의 기념비다. 대쟁투, 50.

파티마의 기적과 그 사탄적 예언은, 사탄이 자신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사칭할 때 가톨릭이 자신들의 교회를 그의 통제 아래 신속히 넘기도록 하는 예언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해 온 것이다. 그의 그리스도 사칭은 임박한 일요일법에서 시작되며, 이는 다니엘서 11장의 16절, 22절, 31절, 41절에 표상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 세력의 손을 잡게 될 때, 또 그가 그 심연을 넘어가 강신술과 손을 맞잡게 될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서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자국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경이로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미국에서 일요일 법이 제정될 때, ‘사탄의 놀라운 활동의 때가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미국은 ‘용같이 말하며’, 이어 13절에서는 미국이 일요일 법을 통과시켜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 주는데, 사탄이 나타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얼굴에 빛이 비치고 거룩한 헌신의 광채로 빛나며,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서둘러 다닐 것이다. 온 땅에서 수천의 목소리를 통해 그 경고가 주어질 것이다.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으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사탄도 거짓된 이적으로 역사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13. 그리하여 땅에 사는 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대쟁투, 611, 612.

파티마의 메시지들은 1917년 10월 13일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동정녀 마리아가 매달 13일에 세 아이들을 방문하였다는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참석했던 무신론 정부 기관지들에 의해 증언된 한 기적으로 입증되었다. 그 기적 당시 파티마에 있던 모든 무신론적 언론 기관들은 그 사건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참된 기적이었다(사탄의).

말라키 마틴이 그의 저서에서 밝혔듯이, 교황 요한 바오로는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에 의해 이끌렸다. 2000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파티마의 비밀 예언은 물론 사탄적인 예언이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처음 때를 되풀이하신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책은 율기이며, 그 책은 모든 예언이 마지막 때에 가장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율이 14만 4천을 대표한다는 것을 밝힌다. 율 이야기에서 사탄은 율을 시험하기 위해 율에게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도록 허락받는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들은 진짜 기적들이다. 그것들은 사탄적인 기적들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사탄이 그의 정점의 행위를 이루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사탄이 율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목적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심령 현상을 영매의 사기와 손재주 탓으로만 돌려 전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사기의 산물이 종종 진짜 현상으로 둔갑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초자연적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들도 있었다. 현대 심령주의가 시작된 그 신비로운 두드리는 소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천사들의 직접적인 역사였고, 그들은 이렇게 하여 영혼을 파멸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미혹 가운데 하나를 들여왔다. 심령주의가 단지 인간의 사기일 뿐이라고 믿는 까닭에 많은 이들이 울무에 걸릴 것이다; 그들이 초자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은 속임을 당해 그것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행한 이적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간과한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도움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유사한 사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증언한다. 주님의 오심에 앞서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역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9, 10.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기적 행하는 능력을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행할 능력이 있는 그 기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다.' 요한계시록 13:13, 14. 여기에서 예언된 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이 행할 능력이 있는 기적들로 미혹되는 것이지, 그들이 행하는 척하는 기적들로 미혹되는 것이 아니다. 대쟁투, 553.

말라키 마틴의 저서에서 파티마의 메시지는 교회 내부의 투쟁과 관련하여, 마지막 시대의 가톨릭교회에 대한 예언적 구조로 제시된다. 이 투쟁은 선한 교황 대 악한 교황, 또는 보수적 교황 대 진보적 교황의 구도로 표현될 수 있다. 보수적 교황,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마틴의 해석에 따르면 곧 선한 교황은 자신의 이해를 제1차 바티칸 공의회(바티칸 I)에 기초한다. 이 공의회는 비오 9세 교황이 소집하여 1869년 12월 8일부터 1870년 7월 20일까지 열렸으며, 주로 교황 무류성 교리를 정의하고 당시 가톨릭교회가 직면한 여러 신학적·교리적 쟁점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바티칸 II)는 훨씬 뒤인 1962년 10월 11일부터 1965년 12월 8일까지 열렸으며, 요한 23세가 소집했고 그가 선종한 뒤에는 바오로 6세가 이어서 진행했다.

마틴의 표현대로 '가톨릭의 마지막 시대'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명된 로마 교회의 무오성과 수위권과, '각성한 교황' 프란치스코가 현재 보여 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들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이의 투쟁을 가리킨다. 마틴은 교회를 통제하려는 이 두 접근법을 둘러싼 싸움 속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여 지상에 내려와 선한 교황에게 축복을 내리며 가톨릭 교회의 왕좌에 오른다고 시사한다.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16절의 일요일 법령에 직접 선행하는 역사는 대리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투를 묘사한다. 그것은 11절과 12절에서의 푸틴의 승리에 뒤이어 일어나는 전투이지만, 그 세 절의 한가운데에 있는 14절은 가톨릭주의가 마지막 시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때를 밝힌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상징적으로 7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로마의 음녀는 잊힌다. 교황권이 538년에 지상에서 처음으로 즉위했을 때, 그 즉위에 앞선 이정표는 533년의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을 둘러싼 역사는 유스티니아누스가 그의 왕국에 혼란을 야기해 온 종교적 논쟁을 끝내어 통치를 공고히 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그 논쟁은 동쪽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서쪽의 로마 교회 중 어느 쪽이 이른바 기독교회의 수장인가 하는 것이었다. 13절에서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유스티니아누스의 전례를 따르도록 그를 몰아가는 논쟁에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톨릭 교회가 교회들의 수장이며 이단자들을 바로잡는 권위자라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는 파티마의 사탄적인 예언들에 어떠한 신뢰도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20세기 초에 땅의 짐승의 두 뿔은 타협의 세대로 불리는 세 번째 세대로 접어들었다. 공화주의의 뿔은 그 재정 시스템을 국제 은행가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들의 기원은 '붉은 방패'의 가문, 곧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비밀결사, 예수회와의 신비한 연관성을 지닌다. 화이트 자매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 직접 경고한다. 같은 시기에 개신교의 뿔로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그 교육과 종교 기관들을 세속 권력의 관할 아래에 넘겨주었다.

바로 그 시기에 현대의 남방 왕은 러시아 혁명과 함께 그 역사를 시작하고, 현대의 북방 왕은 파티마의 기적으로 그 역사를 시작한다. 말라키 마틴이 그의 저서에서 강조하듯, 선한 교황과 악한 교황 사이의 내부적 투쟁을 넘어, 파티마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가톨릭이 무신론과 맞서는 투쟁을,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무신론과 맞서는 투쟁을 지목했다. 1917년에 교황이 따르도록 되어 있던 그 비밀에는, 교황이 콘클라베를 소집하고 러시아를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면 제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다. 또한 교황이 이를 거부하면 러시아가 자신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그 뒤 또 다른 세계대전이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러시아의 공산주의에 맞선 가톨릭주의의 전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전쟁에서 가톨릭주의의 대리 군대는 나치 독일이었다. 교황권은 언제나 대리 군대를 사용한다. 1933년 가톨릭교회는 파첼리 추기경의 활동을 통하여 아돌프 히틀러와 정교협약(concordat)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은 히틀러로 하여금 독일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히틀러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 계약(정교협약)이야말로 그가 유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나치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신론적 러시아에 맞선 교황권의 대리 세력이었으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 대리전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그것은 또 다른 나치 대리 군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영혼의 불멸과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사상이라는 두 가지 큰 오류를 통해 사탄은 사람들을 그의 미혹에 빠뜨릴 것이다. 전자는 심령주의의 기초를 놓고, 후자는 로마와의 공감의 유대를 형성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앞장서서 심연을 가로질러 손을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잡고, 또 깊은 구렁을 넘어 로마 권세와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짓밟는 일에서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이 오늘날 이름뿐인 기독교를 더욱 밀접하게 모방할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울무에 빠뜨리는 힘이 커진다. 사탄 자신도 시대의 풍조에 맞추어 변장한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날 것이다. 강신술을 매개로 기적이 행해지고, 병자들이 치유되며, 부인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들이 성경에 대한 신앙을 공언하고 교회의 제도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자칭 그리스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의 구별선은 이제 거의 식별되지 않는다. 교회 신자들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그들과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탄은 그들을 한 몸으로 결속시키기로 작정하여 모두를 심령주의의 대열로 휩쓸어 넣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려 한다. 기적을 참된 교회의 확실한 표징으로 자랑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에 쉽게 속을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될 것이다. 교황주의자들, 개신교도들, 그리고 세속인들 모두가 경건의 능력 없이 그 형식만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이 연합에서 세상의 회심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천년왕국의 도래를 가져올 위대한 운동을 보게 될 것이다.

심령주의를 통해 사탄은 인류의 은인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더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 신앙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서 일한다. 그의 유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 무절제는 이성을 무너뜨리고, 감각적 방종과 다툼과 유혈 사태가 뒤따른다. 사탄은 전쟁을 기뻐하는데, 그것이 영혼의 가장 악한 정념을 부추기고, 악과 피에 절어 있는 희생자들을 영원 속으로 휩쓸어 가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도록 선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서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서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다.

사탄은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의 추수를 거두기 위해 자연의 요소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그는 자연의 실험실의 비밀을 연구해 왔으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자연의 요소들을 제어하기 위해 그의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 그에게 읍을 괴롭히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재난이 연달아 닥치며 거의 한순간에 양 떼와 소 떼, 종들, 집, 자녀들까지 모조리 휩쓸려 갔다. 피조물을 방패가 되어 지키시고 멸하는 자의 권세로부터 율타리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는 여호와와의 율법을 멸시해 왔으며, 주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곧 이 땅에서 그분의 축복을 거두시고, 그분의 율법에 반역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거두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 주지 않으시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떤 이들을 우대하여 번영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고난을 가져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할 것이다. 대쟁투, 588, 589.